

풍수지리설의 한반도와 일본열도 전파에 대한 비교고찰

A COMPARATIVE APPROACH ON THE DIFFUSION OF GEOMANCY TO KOREA AND JAPAN

윤홍기(오클랜드 대학교 지리, 지질 및 환경학부)

들어가는 말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수지리설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自生]이 아니고 중국에서 전파되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쓰여 온 풍수의 기본 원리와 기본 풍수서는 중국에서 왔고, 풍수 택지원리는 황토고원의 자연환경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흙 굴집(窯洞)을 마련하는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¹

나는 이번 글에서 먼저 ‘풍수지리설의 전파’에 관한 지금까지 나의 공부를 재정리하여 바탕으로하고 약간의 새로운 면을 더하여 풍수지리설이 어떻게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비교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풍수지리설의 한국전파에 관한 연구는 한국 내 자료에만 의지하여 한국문화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 특히 고대 일본과 고대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²

¹ Hong-key Yoon,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Lexington Books: Lanham, 2006), pp.15-29.

²이 글은 지난 2006년 7월 국립민속 박물관에서 주최한 ‘동아시아의 풍수 국제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나의 논문, “풍수지리설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예비 고찰” 중에서 전파의 관한 부분을 약간 보충하고 논리를 재정리한 글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풍수지리설이 언제 어떻게 한반도와 일본열도로 전파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고대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어로 된 나의 풍수지리설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윤홍기 2002, “한국 풍수지리 연구의 회고와 전망”, 『韓國思想史學』 제 17집, 10 - 61 쪽 및 윤홍기, “풍수지리설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예비 고찰”, 『동아시아의 풍수 국제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서울: 국립 민속박물관, 2006년 7월) 17-44 쪽에 포함되어 있다. 영어로는, Hong-key Yoon,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Lexington Books: Lanham, 2006 (Cloth cover edition) & 2008 (paperback edition)), pp.15-29.

풍수지리설의 전파에 관한 연구는 풍수택지 원리가 어디에서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택지원리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도시위치를 비롯한 집터와 묘지 선정에 많이 쓰여 왔고, 현재에도 음택 및 양택풍수에 많이 쓰이고 있어 풍수지리설 전파의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풍수지리의 신비적 발복(發福) 신앙이나 생기(生氣) 이론을 포함한 이기론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따져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지관들이 길지(吉地) 즉 복된 땅 찾을 때, 산의 모양세와 물길의 유무 및 폐철을 이용한 길방(吉方) 설정등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띤 택지원리가 중국에서 생성된뒤 언제부터 어떻게 한국이나 일본에서사용해 왔는가를 알아 보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풍수지리가 언제 한국과 일본에 전파되었는가라는 물음은 곧 풍수택지원리가 언제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게 되었는가라는 물음과 동일하다고 이글에서는 본다.

풍수의 기본 택지원리

먼저 풍수설이 전파되어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풍수의 기본 택지원리가 무엇인지를 잠간 정리하고 난 뒤에 풍수설의 전파를 토론하겠다. 현재 풍수지리에서 시골 마을이나 도시를 들어앉히거나 무덤을 쓰기에 좋은 땅을 찾을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주위의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관들이 지형을 따질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산두령(山勢, 山脈: 산줄기)이다. 산의 모양이 어떠하며 어디서부터 어느 쪽으로 산맥이 왔는지 등을 본다. 명당 또는 좋은 땅(吉地)이란 명당뒤의 산이 삼면(주산, 청룡, 백호)에서 감싸 안고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친다. 이러한 땅은 산두령이 시골 농가에서 흔히 쓰던 삼태기 모양, 또는 말발굽 모양으로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다. 풍수에서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즉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있는 평지에 물길있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이다.

풍수에서 길지를 찾을 때 지형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이 물의 조건과 좌향을 보는 것이다. 풍수혈(예를 들면 묘지나 집터)은 일반적으로 혈 또는 명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러한 곳은 마른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당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앞쪽(남쪽)으로 물이 있어야 하는데 냇물이나 강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이 좋고, 호수나 연못과 같이 고여 있는 물도 좋다고 한다. 풍수에서는 명당자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하는 것을 좌향(坐向)을 잡는다고 하는데, 좌향의 미묘한 차이는 발복에 큰 영향이 있다고 지관들은 말한다. 좋은 방향은 명당주위의 땅의 생김새와 그곳에 설치될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동남쪽과 서남쪽을 포함한 남쪽 방향이다. 이러한 좌향을 갖춘 곳은 대체로 양지바른 곳이다.

이상적인 명당이라고 하는 곳은 대체로 넓고 평평하며 남쪽을 향한 땅이 뒤로 산이 있어 병풍 같이 두르고 좌우에 언덕이 있어 겨울에 추운 서북풍으로부터 보호되는 곳인데, 이러한 곳은 겨울에도 햇빛을 잘 받고 바람이 자서 살기 좋은 곳이다. 이것이 풍수택지의 기본원리인 바 이러한 것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자.

풍수지리설의 한반도 전파

풍수는 중국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생성 되었고 성장해 왔다. 풍수의 중국 황토고원 기원설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발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토론하지 않겠다. 중국에서 생성된 풍수사상이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중국문화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와 같은 시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교 또는 도교 사상이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 초기 또는 그 성립 이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다고 보임으로 풍수의 전래도 또한 그러하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 풍수지리설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은 798년에 신라 원성왕(元聖王)이 돌아간 다음 왕릉자리를 논하는 구절이 나오는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송복사(崇福寺) 비문(碑文)이라고 한다. 이 비문에는 무덤은 지맥을 가려서 씌우므로서 후손에게 복이 간다고도 했고, 풍수지리설의 조종으로 꼽히는 청오자(靑烏子)도 거론되는 등 풍수사상이 반영된 글이다.³ 이 비문에 의하면,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성왕의 능(陵)은 곡사(鵠寺)라는 절터에 모셔졌다. 이는 물론 그 절터가 풍수적으로 봐서 좋은 터이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이기백 교수는 “8세기 말 下代의 초에는 풍수지리설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풍수지리설의 시초라고 할 수 만은 없으므로 이미 8세기에 들어서면 풍수지리설이 도입되었다고 봐서 잘못이

³이기백, 「한국 풍수지리설의 기원」, 『한국사 시민강좌』 제14집, 1994, 7쪽.

없겠다"고 주장했다.⁴ 그래서 이기백 교수는 현존하는 풍수지리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최치원의 승복사 비문을 풍수지리설 도입시기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서, 8세기를 풍수지리의 한반도 전래시기의 상한선으로 그으신 것 같다. 그러나 승복사 비문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풍수지리설 시행의 하한선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무리 늦어도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 798년 이전에 이미 전래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798년에는 왕의 무덤을 명당에 쓰기위해 그 곳에 위치한 절을 헐어 내고 그 터에 왕릉을 쓸 정도로 풍수를 심각하게 신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지리설의 존재에 대한 상한선을 긋는 데는 승복사 비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풍수지리설이 이 비문에서 말하는 원성왕릉을 모시는 사건보다 몇 백 년 전에 한반도에 들어 왔는가에 관해서는 어떠한 암시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풍수지리설이 언제 어떻게 중국에서 한국에 전파되었는가를 단정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단편적인 역사적, 민속적 사실은 풍수설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의 단서를 찾는 데 있어서 집고 넘어가야 할 자료들이라고 생각한다.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했다는 것이나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태백산이 가히 홍익인간(弘益人間) 할 만하여 태백산 꼭대기에 3천인을 데리고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단군신화가 풍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⁵ 그러나 단군신화에는 풍수적으로 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누가 어떤 장소를 선정했다고 하여 모두 풍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야국의 시조 수로왕(AD42-199)이 도읍을 정하는 것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사는 왕의 말과 행동이 상당히 풍수적이다.⁶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수로왕 2년에 왕이 도읍을 정하려한다하고 심답평으로 가서 주위 산악을 두루 바라보고 이 땅이 여뀌잎처럼 협소하지만 산천이 수려하고 기이하야 강토를 개척하면 좋을 것이라하고 도읍의 터를 닦고 궁궐을 짓고 도읍을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로왕이 도읍의 터의 주위 산천을 바라보고 수려하고 기이하야 수도로 삼았다는 것은 풍수적인 용어를 쓰진

⁴ 이기백, 앞의 책, 7 쪽.

⁵ 예를 들면, 박용숙, 神話體系로 본 韓國美術論 (서울: 일지사, 1975), p.13; 박시익, 風水地理設 發生背景에 관한 分析研究, 고려대학교 건축공학 박사학위 논문, p.254.

⁶ 일연, 『삼국유사』 이재호 역주, 1권 (서울: 광문출판사, 1969), pp.279-280.

않았지만 풍수적이다. 그러나 탈해(脫解, 재위, AD 57-80))가 신라 제4대 왕이 되기 전에 솟을 문을 호공(瓠公)을 속여서 초승달 같이 생긴 명당을 차지해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더 구체적인 풍수전설로 볼 수 있다.⁷ 왜냐하면 초승달같이 생긴 땅이란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주산 청룡 백호가 혈을 삼면에서 에워싸고 있는 명당이기 때문이다. 단군신화나 수로왕 및 탈해와 호공의 이야기는 13세기에 쓰여진 삼국유사에 비로소 글자로 기록된 것이다.

기자(箕子)가 우리나라로 와서 조선왕이 됐다는 전설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확률이 아주 크다. 그러나 비록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설이 갖는 문화사적인 의의는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 기자동래설은 기자가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든가, 실제로 한국에 왔다, 안 왔다 하는 것에 관계없이 고대 중국문화가 한국에 전래되어 고대 한국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고대 중국문화의 한국 전래 시기는 바로 풍수설의 전래시기를 의미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어떤 이들은 풍수는 신라 말 도선(道詵)에 의하여 전래됐다고 하며 경주에 있는 평지의 왕릉은 풍수설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증거라고도 하는 것 같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인 것 같다. 중국의 관중분지에 지금도 남아 있는 옛 한 나라 또는 당 나라 때의 왕릉들도 평지에 흩어져 있는 것이 많다. 평지에 왕릉을 만든 한나라나 당나라 도읍지에 풍수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경주에 있는 평지의 왕릉이 그때까지 한국에 풍수가 전래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중국의 당 나라나 한 나라에 풍수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 또는 그 이전에 풍수가 이미 전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고대부터 빈번한 접촉이 있어서 문화교류가 있었는데, 특히 한 나라 때는 중국식민지인 한사군이 한반도 서북부에 설립되어 중국인이 이주 해 와서 살았고, 당나라 때는 중국군대가 고구려와 백제를 침략하여 정복한 뒤 상당 기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한 나라나 당 나라 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문화가 한반도에 대량으로 보급된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문화의 중요한 부분인 풍수도 이러한 고대의 중국문물과 함께 한반도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⁷일연, 『삼국유사』, 이재호 역주, 1 권, p.120 쪽.

동산과 연못을 집의 남쪽 앞마당에 파서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풍수의 영향을 받은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원이 한반도에 출현한 것은 곧 풍수설이 한반도로 전파된 증거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궁성에 있는 정원에서 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동사강목(東史綱目), 삼국사기(三國史記) 그리고 대동사강(大東史綱) 등에 나온다.⁸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정원의 규모나 구조를 알기가 힘들지만, 정원의 구조를 추증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삼국사기의 백제본기 제3 진사왕 7년 (AD 391) 춘정월 조에 “궁실을 다시 수리하고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서 이상한 짐승과 기이한 화초를 길렀다”라고 나온다.⁹ 이 기사는 확실히 백제궁성에는 인공적으로 동산을 만들고 연못을 파서 기이한 짐승과 화초를 길렀던 상당히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러한 정원이 궁성의 어느 쪽에 만들어 졌는지는 기록이 없거나, 만약 이것이 백제사람 로자공이 일본에 건너가 612년에 만든 정원과 같이 궁성의 남쪽 마당에 만들어 졌다면 다분히 풍수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생기가 물을 건너지 못한다 하여 생기를 집에 잡아 놓기 위하여 정원수가 흐르는 물길이나 연못을 집의 앞마당 (주로 남쪽)에 만들곤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제의 또 다른 궁성정원에 대한 기사에서는 정원을 궁궐의 남쪽 (앞마당)에 만들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동사강목 (東史綱目) 第三 下 甲午 무왕 35년 (AD 634) 2월 조에는 “또 궁궐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물을 20리 넘어나 끌어 들였다. 연못가에는 능수버들을 심고 연못 가운데는 섬을 만들었는데 방장선산 (方丈仙山: 신선이 산다는 방장산)을 본 텃다”라는 기사가 나온다.¹⁰ 이 연못은 지금도 부여에 있는 궁남지(宮南池)로서 일부 복원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답다. 이러한 백제 정원의 기록을 보면 ‘풍수설의 일본 전파’에서 토론될 백제사람 로자공이 일본에 최초로 만든 정원의 규모와 설계가 백제의 궁성 정원과 비슷했을 것이라는 것을 가히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궁의 남쪽에 연못을 파서 정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분히 풍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풍수가 391년 이전(아무리 늦어도 634년 이전)에 한반도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⁸尹國炳, 造景史 (서울: 일조각, 1986), 201 쪽.

⁹ 金富軾 지음, 李丙燾 역주, 三國史記(下), (서울: 을유문화사, 1987), 번역문은 36 쪽, 원문은 45 쪽. 이 글에 인용된 번역문구는 이병도의 번역을 약간 풀어 고친 것임.

¹⁰ 尹國炳, 造景史 (서울: 일조각, 1986), pp.206-7.

지금 현재 중국 요령성 집안에 있는 고구려 환도성지를 둘러싼 산 모양을 보면 이는 풍수적으로 이상적인 말밭굽 모양이다. 그야말로 초승달모양의 명당지이다. 서기 244년에 위(魏)의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하여 환도성을 함락한 사실로 볼 때 만약 환도성이 풍수를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라면, 당시 고구려에 풍수가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오래도록 잘 아는 바와 같이 고구려 무덤에는 풍수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신사를 상징하는 현무, 주작, 청룡, 백호의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사신도는 고구려 시대에 풍수가 이미 도입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글의 ‘풍수의 일본 전파’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708년에 일본왕실이 새로운 도읍지를 선정할 때 나라분지의 주위 지형을 보면서 사신사(四禽: 네 짐승) 운운하는 구절이 보인다. 사신사의 지형을 본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지형을 본다는 것인데 고구려 벽화의 사신사도 바로 풍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

풍수지리설이 고대 일본의 불교 및 정원(庭園)등 다른 문물과 같이 일본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고대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고 보인다. 다음에 토론 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는 서기 700년대 초, 더 거슬러 올라가면 600년대에도 풍수가 이미 사용된 것 같이 보인다. 일본서기(日本書記)에 의하면, 백제의 승려 관륵(觀勒)이 AD 602년 10월에 일본 궁실에 천문지리 및 역술에 관한 책을 가져왔고 그때 3-4명의 일본 선비들이 관륵에게서 배웠다고 한다.¹¹ 천문지리에서 천문에 대비되는 지리는 풍수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기사대로라면 일본에 풍수가 아무리 늦어도 602년에는 전달된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에 풍수를 전한 한반도(백제)에는 일본보다 더 일찍이 풍수지리설이 전파되어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한국에는 아무리 늦어도 600년대 이전 삼국시대 중이나 그 이전에 이미 풍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기 200년대의 고구려 환도성의 지형과 300년대에 백제 진사왕 시대에 만든 왕궁의 정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렇게 들어온 풍수지리설은 신라 말 옥룡자 도선(玉龍子 道詵)이 크게 붐을 일으켰고, 고려 대에 극성하여 정치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을 말리는 결과까지 낳게 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한국민족의 뼈 속에 깊게 뿌리 박힌 사상이 되어 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¹¹ 와타나베 요시오 (渡部欣雄), 일본 풍수사: 과학과 점술의 역사, 국립 민속박물관 2006년 국제 학술심포지움, 별책, p.4.

풍수의 일본 전파

고대 일본열도로 풍수설이 전파된 것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유교, 불교 등을 포함한 문물이 전파되던 시기에 이미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풍수가 언제 어떻게 일본에 전래되었는지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몇 가지 퍼즐로 맞추어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는 있다. 그것이 바로 고대 일본에서의 정원 및 도시 건설이다.

1) 일본 고대 정원

『니혼기(日本紀)』에 의하면 일본정원의 시초는 612년(수이꼬 천황 때)에 백제사람 로자공(路子工: 미찌꼬노 다구미 또는 시꼬마로)이 일본왕궁의 남쪽 마당에 수미산을 만들고 아취형의 오교 다리를 놓아 만든 것이라고 한다. 『니혼기』에 나오는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²

이때 (AD612) 백제국에서 한 사람이 이민해 왔는데 얼굴과 몸이 온통 흰 반점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마도 ‘흰 버짐’, 白癩 [무좀같이 가려우며 흰 반점을 남기는 피부병]가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이 특이한 모양의 사람이 싫어서 바다 속 섬에 버리기를 원했다. 그 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의 흰 반점이 있는 피부를 싫어한다면 흰 반점이 있는 얼룩소나 얼룩말을 기르지 않아야 할 것이요. 더욱이, 나는 작은 재주가 있소. 나는 산이나 언덕 모양을 만들 수 있소. 나를 [버리지 말고 이곳에] 머물게 하여 활용한다면 이 나라에 유익할 것이요. 왜 나를 바다 속 섬에 내다 버리려고 하오?” 라고 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섬에]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수미산의 모양을 한 동산과 오교 (吳橋: 아취형의 다리)를 궁궐 남쪽마당에 만들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路子工: 미치꼬노 다구미’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또는 ‘시끼마로’라고도 불렀다.

¹² *Nihongi: Chronicles of Japan from the Earliest times to AD 697*. Part Two, Book XVII, Trans. by W.G. Ast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6), p.144; 小島憲之, 直木孝次郎, 西宮一民, 藏中 進, 毛利正守 (校注.譯者), 日本書紀 (2) <全三冊>, (東京: 小學館, 1996), 567-569.

위의 일본 궁성의 최초의 정원을 짓게 된 사실을 알리는 기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일본정원의 시초는 백제에서 이민 온 사람, 로자공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정원 설계는 상당히 풍수적이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 수미산과 아취형 오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연못 가운데 동산이 있는 섬을 만들고 그 섬과 연못 바깥을 연결하는 아취형의 다리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 점은 연못을 파고 동산을 만들어 정원을 만들었다는 백제 진사왕 시대의 왕궁정원 구조나 무왕시대의 궁남지(宮南池) 정원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이 간다. 로자공은 일본궁성에서 자신의 재능을 소개한 것으로나 정원을 만들었다는 기사로 미루어 봐서 그는 아마도 백제 왕궁에서 정원 일을 하던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노력이 많이 드는 정원조성은 왕궁이나 큰 절간 같은 곳이 아니고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는 정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로자공은 연못이 아니더라도 정원에 작은 개울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위로 다리를 걸쳐 놓고 집에서 볼 때 다리 넘어 큰 동산을 만들고 그 곳을 수미산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성스럽고 가장 높은 산인데, 위의 경우에는 집에 앉아 정원을 내다 볼때 멀찌감치 다리 너머 꾸며 놓은 동산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원을 궁성 남쪽 마당에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풍수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남쪽은 풍수에서 좋은 방향(吉向)이며 남쪽 마당은 집의 앞마당으로 해석할 수 있다. 풍수에서는 생기(生氣)는 물을 건너서 도망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집에 딸린 정원의 개천이나 연못을 만들 때는 생기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집 뒤가 아니라 받은 생기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앞마당(주로 남쪽임)에 파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풍수에서는 뒤에 산이 있고 앞이 트인 평지로서 물이 있는 것이 요구되지만 앞이 너무 멀리까지 평평하면 얹되고 안산(案山)이 앞에서 막아주는 것을 길지의 조건으로 삼는다. 수미산이라고 불리운 정원의 동산은 이러한 앞막이, 집에 앉아서 볼때 안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에서 로자공이 만든 정원은 풍수술의 영향을 받은 정원으로 보인다. 일본의 정원 원리는 풍수적인 바가 크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정원서로 알려진 일본의 『사쿠데이기(作庭記)』에 나타난 정원

만드는 법은 풍수지리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¹³ 특히 지형의 기복 조성, 나무의 종류를 골라 길한 곳에 심기, 물이 흐르는 모양과 방향의 결정 등에서 풍수 사상의 영향이 현저히 보인다. 일본에서 정원의 시작은 풍수술의 전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본 정원문화의 발달은 풍수지리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2) 일본고대의 도읍 건설

필자는 1980년대에 헤이조쿄(平城京: 나라, 奈良) 헤이안쿄(平安京: 京都) 구니쿄(恭仁京)등 일본의 고대 도읍터를 답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의 주위 지형과 도시유적을 보면 일본에서는 기원 후 700년대 초에 이미 풍수가 왕궁과 도시건설에 쓰였다는 확증이 남아 있다.

고대 일본왕실이 도읍을 나라로 옮겨 헤이조쿄(平城京)를 건설하기 전에 풍수를 본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쇼쿠니혼기(續日本紀)』 708년 2월 15일 조에는 ‘나라의 땅[平城之地]’은 사신사(四禽: 현무, 청룡, 백호, 주작)가 법도에 맞고, 삼산(三山)이 막혀있어서 도읍을 건설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평가한 구절이 보인다.¹⁴ 이 구절은 헤이조쿄를 건설할 나라분지는 삼면이 주산, 청룡, 백호로 둘러싸인 길지로서 도읍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명당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기 794년 일본은 수도를 헤이안쿄(교토)로 옮겼다. 이때 일본 조정의 대신이었던 충직한 조영대부(造營大夫: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와게노기요마로(和氣清麻呂)는 교토분지의 사신사(현무 청룡 백호 주작)가 풍수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수도를 건설했다고 한다.¹⁵ 내가 답사한 바에 의하면 교토의 히가시야마는

¹³ Sakutei-ki, *The book of Garden (Being a full translation of the Japanese eleventh century manuscript: Memoranda on Garden Making Attributed to the writing of Tachibana-no-toshitsuna)*, trans. by Shigemaru Shimoyama, (Tokyo: Town & City Planners, Inc., 1976), pp. 45.

¹⁴ “平城之地四禽叶圖三山作鎮龜菴並從宣建都邑” 續日本紀 (東京: 岸田吟香等, 1883 년판), 卷第四, 三쪽: 古橋信孝(후루하시 노부요시), “平安京の都市生活と郊外(평안경의 도시생활과 교외)”, (東京: 吉川弘文館, 1998), p.19.

¹⁵ George Sansom, *A History of Japan to 1334*, Stand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p.100.

청룡이고, 니시아마는 백호이며, 히에이 산이 주산이 되는 지형으로서 이러한 산두령은 시가지를 말밭굽같이 또는 우리 시골에서 쓰던 삼태기 같이 삼면에서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풍수의 택지원리를 적용해봤을 때 도읍지로 적당한 명당임에 틀림없다.

일본에서는 풍수가 한국이나 중국에서와 같이 민간인들 사이에 널리 신봉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통도시들 특히 조카마치(城下町)의 위치는 풍수적으로 명당에 위치한 것이 많고, 그 시가지에서 높은 곳, 즉 주산 밑에는 대체로 다이묘(大名)의 궁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방문한 교토시나 오가야마겐에 있는 상당수의 불교 또는 신도사원은 풍수적으로 명당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풍수지리설 전파에서 비교문화 연구의 필요성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로 중국문화가 언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중국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중국문화를 수입했으며 어떻게 수입된 문화를 소화했는가를 비교하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대로부터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중국의 문화를 수입하였던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서로 비교해 보면 고대 한국과 일본에서 풍수지리설이 어떻게 수입되어 소화되었는지를 알아 보는데 도움이 된다. 일본에서 중국문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컸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그 당시 양국의 문화와 사료를 비교하고 대조할 때,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료나 문화 유적은 다른 쪽의 그때 사정을 추증하는데 큰 힘이 된다. 한국인이 한국내의 자료에만 의지하여 한국문화를 연구한다면 김원룡 교수가 말한바 와 같이 한국문화는 모두 남의 것보다 우수하고 독창적이라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¹⁶ 비교 문화적인 연구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하는 한국문화 연구는 이러한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식견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한국과

¹⁶ Kim Won-ryong, "Problems in Korean Cultural Research," Korea Journal, vol. 30, no. 9 (1990), 8-9.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여 풍수의 전파를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국수적인 생각에서 해방

일부 한국 학자들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풍수가 중국에서 생성되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자생(自生)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풍수술의 한국 자생론은 근거 없는 상상이라는 것이 비교문화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확실해진다. 문헌상 기록이나 남겨진 풍수 고전들, 알려진 유명한 풍수사들을 고려해 볼 때 풍수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국의 자생 풍수의 근거로 인용되곤 하는 한국의 비보풍수나 산천을 의인, 의물화하여 다루는 풍수신앙도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는 흔히 보이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자료도 참고하여 비교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의 풍수를 연구했다면 한국의 자생 풍수론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사리를 왜곡하지 않는 선상에서 민족주의는 용납되지만, 사리를 왜곡하는 국수주의 적인 논리는 국제학계의 비웃음을 살 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실질적인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2. 고대 정원문화를 통하여 본 풍수의 전파시기에 대한 고찰

한반도나 일본열도에서 풍수술의 영향이 보이는 정원이 출현했다는 것은 곧 풍수술의 전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원술도 물론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전파된 것이다. 일본에 풍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원이 612년에 백제 사람 로자공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풍수적인 영향을 받은 정원을 누가 언제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오래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백제의 정원에 대한 사료를 고려해 볼 때 391년 진사왕 때 만든 정원이나 634년 무왕 때 만든 궁남지 정원은 모두 풍수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이민 간 로자공은 바로 백제 왕궁에서 정원 일을 하던 사람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한국의 정원은 일본 정원의 근원이었고, 한반도에서 정원의 시작은 일본보다 더 일찍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인다. 왜냐하면 백제 사람이 일본 최초의 정원 설계사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할 때 풍수의 전래를 포함한 문화의 전래에 관한 자료를 서로 보완하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3. 풍수술을 이용하여 도시위치를 선정한 것을 통하여 본 풍수술의 전파

일본의 기록에는 708년도에 도읍지를 찾는 과정에서 나라분지를 풍수술을 이용하여 지형을 평가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다. 이때 그들이 이용한 풍수술은 현대 풍수술의 지형평가와 비슷하게 사신사 즉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을 보고 남쪽이 트이고 북쪽과 동서 쪽이 우리 농촌에서 쓰던 삼태기 같이, 또는 초승달 같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길지를 찾는 것이었다.

한국의 사료에는 이렇게 풍수이론을 이용하여 도읍지의 지형을 평가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수도는 물론 없고, 고려의 수도 개경에 관한 기록에도 없다. 가락국기에 수로왕이 수도를 건설할때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에 가서 주위 산을 바라보고 기이하니 좋다고 하여 궁궐을 짓고 수도로 정했다는¹⁷ 기록도 그가 풍수적으로 땅을 봤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가 풍수를 적용하여 땅을 보았다는 확증은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이 나라를 수도로 정했을 때와 같이 사신사에 해당하는 지형을 둘러보았다던지 하는 풍수원리를 적용하여 택지를 하였다는 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392년에 설립한 조선왕조 초기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도읍예정지의 지형을 평가할 때 풍수술이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도읍지를 풍수술을 적용하여 택지하였다는 구체적인 기사로서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대 왕실에서 풍수 답사를 하여 지형을 평가한뒤에 그 곳으로 도읍을 정하여 천도하였다는 기록은 일본이 한국보다 6-7백년 앞선다. 개성은 명당지로 알려져 있고 그 지역에 대한 풍수적인 전설도 많다. 그러나 개성이 고려의 수도로 정하여 진테에는 이곳이 바로 풍수설을 상당히 신봉한 것으로 보이는 태조 왕건의 고향 땅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왕건이 풍수이론을 적용하여 개경의 지형을 평가하고 수도로 정했다는 증거는 없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약속하게나마 668년에 이룩한 직후 신문왕 9년(689년)에 수도를 경주에서 오늘의 대구인 달구벌(達句伐)로 옮기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짧은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신문왕 9년 윤구월 26일조에 “장산성(獐山城: 지금의 월성군)에 임금이 거둥하였다. 서원경(西原京: 지금의 청주)에 성을 쌓았다. 왕이 달구벌로 도읍을 옮기려 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¹⁷ 일연, 삼국유사, 이제호 역주, (서울: 광문출판사, 1969), 기이 제2, 가락국기, 번역문은 pp. 279-280, 원문은 pp.408-409.

(秋閏九月二十六日, 幸獐山城. 築西原京城. 王欲移都達句伐, 未果)”라는 기록이다.¹⁸

위의 짧은 기사에서 우리는 왕이 장산성에 거둔 날이 윤구월 스무엿세날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서원경에 성을 쌓았다는 말은 이날 성 쌓기를 마쳤다는 말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리고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다 실패했다는 것은 이날 도읍을 경주에서 대구로 옮기는 것을 포기한 날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오래도록 달구벌로 천도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는지, 천도계획 과정에서 왕이 실제 달구벌을 답사 하였는지 일본의 나라나 교토의 경우와 같이 풍수적으로 대구 주위의 지형을 평가하고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려 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일본이 헤이조쿄와 헤이안쿄로 도읍을 옮길 때 그 곳 지형을 풍수적인 면에서 고려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신라에서도 달구벌의 풍수를 보고 천도를 계획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인용한 續日本紀의 기사를 보면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아마도 일본 궁중의 대신과 지관을 시켜서 도읍 예정지를 답사 것 같다. 이것은 마치 조선조 태조가 즉위하자마자 수도 예정지를 풍수에 밝은 이들을 시켜 찾았고 곧 바로 풍수사를 동반하여 수도 후보지를 답사한 것과 비교될 만 하다. 그렇다면 신라조정에서도 달구벌로 천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선조 태조가 친히 서울과 모악 및 개룡산을 지관과 대신들을 동반하고 답사 했듯이 왕이 직접 달구벌을 답사 했을 수도 있고, 적어도 풍수를 잘 아는 사람과 대신을 시켜서 달구벌(대구)의 지형을 답사했을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신문왕이 장산성에 거둔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가 왜 그 곳을 방문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여러 지방을 방문했다면 도읍예정지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달구벌도 방문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인다. 그때 풍수를 잘 아는 대신이나 지관에 의해 대구가 미래의 도읍지로 추천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상상해 본다. 왜냐하면 대구 분지는 조선조 때 경상도 감염이 있었던 곳으로 대구분지의 지형은 풍수적으로 명당지임에 틀림없는 땅이기 때문이다. 풍수적으로 봐서 경주보다는 대구의 지형이 훨씬 더 명당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신문왕의 천도계획에 풍수적인 면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짐작은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료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조선조 태조가 새로운 왕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¹⁸ 金富軾 지음, 李丙燾 역주, 三國史記(上), (서울: 을유문화사, 1987), 번역문은 159쪽, 원문은 170쪽. 이 글에 인용된 번역문구는 이병도의 번역을 약간 풀어 고친 것임.

위하여 ‘망한 왕조’의 수도인 개경을 버리고 서울로 천도 했듯이 신문왕도 옛날 삼국중의 작은 나라였던 신라가 아닌 통일 신라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이기 위하여 국토의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경주를 떠나 훨씬 넓고 보다 국토의 중앙이면서도 경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뿐 아니라 풍수적인 조건도 더 좋은 대구로 도읍을 옮기고자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신라의 이미지를 본디 신라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신라 백성이 된 옛 백제와 고구려 사람들에게 심으려고 새롭고 더 큰 도읍지,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 했으나 경주지방의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왕의 계획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을 증명할 자료는 없지만, 이는 조선조 태조 때 수도를 옮길 때 개성시민들의 반대가 컸으며 정종이 잠시 개성으로 환도했을 때 개성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봐서도 크게 무리없이 짐작 해 볼 수 있다.

고대 일본의 도시 위치 선정과정과 한국의 고대 도시의 위치 선정과정을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은 상대방 나라의 자료를 통하여 각기 자기 나라의 경우를 새로운 각도에서 비춰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치는 말

한국과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풍수의 택지원리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자생된 것은 아니다. 풍수설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옛날 중국문화가 도입되던 초기에 도입되어 각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풍수지리설의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전파연대를 정확히 확인 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고대 궁중 정원의 시작이나 도읍지의 선정과정은 풍수의 전파를 암시해 준다. 일본과 한국의 고대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의 풍수전래시기와 그 방법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